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칼럼)-금융시장에서 더 드러나는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
 - ◇ (초점)-경제 재개에 따른 일상 복귀..활동 별 코로나 19 위험 지수는?
 - ◇ (시장진단)-재부상한 北 리스크, 연말까지 원화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될 수도
 - ◇ (초점)-해소되지 않는 마이너스 크로스 금리, 본드스왑스프레드 이어 뉴노멀되나

.....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는 장면이다. (조선중앙통신/로이터)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6월19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209.6	-0.5%	-4.4%	-3.5%	유로	1.1175	-0.7%	-0.3%	-2.3%
100엔 대비	1,133.6	-1.1%	-6.3%	-4.4%	엔	106.87	0.4%	1.6%	0.9%
유로 대비	1,354.2	0.0%	-4.5%	-1.3%	위안	7.0883	-0.3%	-1.8%	-1.3%
위안 대비	171.31	-0.8%	-3.3%	-2.4%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25,871.46	1.0%	-9.3%	22.3%
코스피	2,141.32	0.4%	-2.6%	7.7%	나스닥	9,946.12	3.7%	10.8%	35.2%
코스닥	742.03	-0.5%	10.8%	-0.9%	S&P500	3,097.74	1.9%	-4.1%	28.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MSCI APxJP	513.77	1.7%	-7.1%	15.8%
국고채 3Y	0.844%	0.3bp	-51.6bp	-45.7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5Y	1.125%	0.0bp	-35.5bp	-40.4bp	미국채 2Y	0.190%	-0.5bp	-137.1bp	-93.7bp
국고채10Y	1.380%	-0.8bp	-30.3bp	-26.5bp	미국채 10Y	0.694%	-1.6bp	-121.6bp	-78.1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유가(WTI)	39.75	9.6%	-34.9%	34.5%	한국 5Y	25.6bp	-0.3bp	4.5bp	-17.0bp
금(현물)	1,742.84	0.8%	14.9%	18.3%	일본 5Y	38.0bp	0.0bp	20.3bp	-4.0bp
TR상품지수	2,194.52	-0.8%	-11.7%	4.8%	중국 5Y	47.2bp	-2.5bp	16.5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6월 22일(월)>

- 관세청/산업부, 6월 1-20일 수출입 동향

<23일(화)>

- 한은, 5월 생산자물가지수(06:00)
- 기재부, 2차관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10:00)
- 기재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문 개정안 발효(10:00)
- 한은, 2019년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잠정)(12:00)

<24일(수)>

- 기재부, 경제 부총리 녹실회의(07:30)
- 기재부, 경제 부총리 정책현안점검회의(15:00)
-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RP 현금성 자산 규제 관련(배포시)
- 금융위, 2021년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선정 결과(배포시)
- 한은, 「금융안정보고서」(11:00)
- 통계청, 4월 인구동향·5월 국내인구이동(12:00)

<25일(목)>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08:00), 브리핑(10:30)
- 한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15:00)
- 기재부,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6월 발행실적, 국고채 발행시장 안정 제도개선(17:00)

<26일(금)>

- 한은, 6월 소비자동향조사(0600)
- 한은, 5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2:00)
- 기재부, 7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15: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6월 22일(월)>

- 중국, 대출 우대금리 (10:00)
- 미국, 5월 전미활동지수 (21:30)
- 미국, 5월 기존주택판매 (23:00)
- 유로존, 6월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23:00)

<23일(화)>

- 일본, 6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09:30)
- 유로존, 6월 마켓 제조·서비스업 PMI 잠정치 (17:00)
- 미국, 5월 건축허가 수정치 (21:00)
- 미국, 6월 마켓 제조·서비스업 PMI 잠정치 (22:45)
- 미국, 5월 신규주택판매 (23:00)

<24일(수)>

- 일본, 일본은행 6월 15-16일 정책회의 주요 의견 요약 공개(08:5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4월 주택가격 (22:00)
- 뉴질랜드, 뉴질랜드 연방은행 기준금리발표

<25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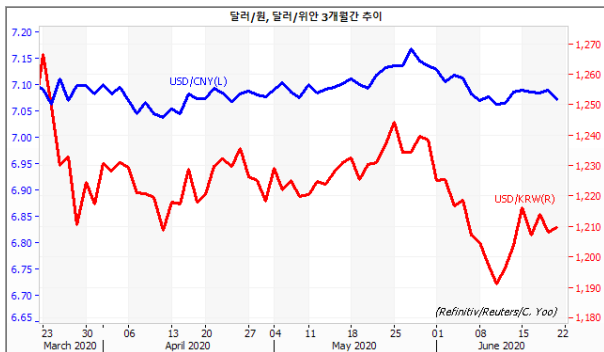
- 미국, 1분기 기업이익 수정치 (21:30)
- 미국, 5월 내구재 주문 (21:30)
- 미국, 1분기 GDP 확정치 (21:30)
- 미국, 1분기 근원 PCE 물가지수 확정치 (21:30)
- 미국, 5월 소·도매 재고 (21: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중국, 홍콩, 대만 휴장

<26일(금)>

- 일본, 6월 도쿄 소비자물가지수(CPI) (08:30)
- 유로존, 총 유동성(M3) 증가율 (17:00)
- 미국, 5월 개인소득 (21:30)
- 미국, 5월 근원 PCE 물가지수 (21:30)
- 미국, 6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최종 (23:00)
- 중국, 대만 휴장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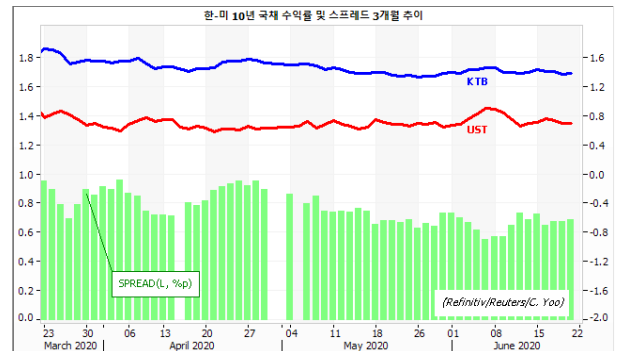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주요국 주식시장이 개별 종목 장세를 연출하는 가운데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최근의 '하루 상승, 하루 하락'의 지그재그식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많은 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이 거세지는 가운데 재선 가도에 빨간 불이 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수행 모멘텀은 약화하는 분위기다.
- 코로나 19 종식 지연은 그동안 위험자산 랠리를 뒷받침했던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에 치명적이다. 물론, 아직 주가 등 위험자산 가격의 무질서한 하락 조짐은 보이지 않고,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 발표 때마다 기대를 조정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지난 3월 연저점을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무려 7% 이상 절상했고, 서울 주식시장 코스피는 49% 올랐다. 같은 기간 MSCI 신흥국통화지수는 단 3% 상승했고, MSCI 일본 제외 아시아-태평양주가지수는 34% 올랐다. 밸류에이션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 이런 가운데 외환시장에서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랜만에 주요 재료로 떠올랐다. 6.25 한국전쟁 발발 기념일을 전후해 탈북자 단체가 북한에 전단 살포를 시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 주 외환시장에서 북한 관련 뉴스의 위력은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전 세계 금융시장은 다음주 분기-반기 마감을 앞둔 정리 매매로 급변동을 겪을 가능성도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분기말 자금시장 상황과 변동성 확대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 RP 현금성 자산 규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시장에서 기일물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수의 프랍 계정들이 예수금 부담을 감수해야 채권을 매수할 수 있게 된다.
- 당장 7월은 규제가 완화된다 해도 결국 시행된다고 할 때 단기자금 시장 전반의 위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 분기말까지 맞물리며 자금시장이 다소 타이트하게 운용될 여지가 있다.
- 국고채 30년물 입찰이 30일로 당겨짐에 따라 이번 주말로 갈수록 국고채 입찰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 단기물, 장기물 시장 모두 다소 금리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어 보인다.

(칼럼)-금융시장에서 더 드러나는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

(※ 이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런던 (로이터) - 경제 재개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 우려는 거의 모든 투자자들의 가정에 존재했다. 그럼에도 왜 지난주 주식시장은 코로나 19 감염자 증가 소식에 패닉을 보였던 걸까?

지난주 미국과 중국 일부 지역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급증 소식에 글로벌 주식시장은 3월 이후 최악의 한 주를 겪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 19 재확산에 대한 이야기나 재확산 가능성에 대한 증거 모두 열어지며 이번 주에는 거의 즉각적으로 반등했다. 이번 에피소드는 시장 가격의 투기적 거품을 알 수 있는 한 예가 됐다. 이는 분명히 지속되고 있는 경기 회복 추측과는 대조적이다.

'코로나 19 재확산' 가능성은 이미 시장 컨센서스에 반영되어 있다. 지난 판데믹도 비슷했고, 외출제한 조치가 완화되고 사회적 접촉이 다시 시작되면서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기도 하다.

지난 몇 달 동안 주요 은행 및 자산운용업체들이 발간한 연구 보고서 중 코로나 19 재확산 여부를 주요 가정 또는 적어도 유의미한 리스크로 언급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뱅크오브아메리카가 6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대다수가 3개월 연속 '코로나 19 재확산'을 '최대 꼬리 리스크'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까지 약 18개월 동안 한 번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언급된 꼬리 리스크는 '무역 전쟁'이었다.

가장 낙관적인 태도를 보인 은행과 자산운용사들의 주요 가정에도 코로나 19 재확산은 존재했다.

예를 들어 모간스탠리의 경우 글로벌 GDP가 2분기 8.6% 수축한 뒤, 2021년 초까지 3%의 성장률을

회복하는 V자형 경제 회복을 전망했으나 그럼에도 코로나 19 재확산을 가정하고 있었다.

체탄 아히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19 재확산이 가을쯤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일 것이며, 선별적으로 외출제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조차도 지난주 2020년 글로벌 전망을 두가지로 요약했다. "발생 가능성이 비슷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2020년이 끝나기 전 코로나 19가 재확산되면서 외출제한조치를 재개하는 시나리오와 또 다른 대규모 감염을 피하는 시나리오다"라고 밝혔다.

두 시나리오의 차이는 비교적 적은 1.6%포인트다. 긍정적 시나리오에서 6% 경제 수축, 또다른 시나리오에서 7.6% 수축 사이 이같은 차이는 예측 오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OECD는 내년 연 3.9%의 반등을 전망하면서도, 올해 코로나 19 재확산 시나리오에 따른 추가 영향은 내년에도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민감해진 시장

미국 50개 주 중 6개 주에서의 신규 확진자 증가와 베이징 소규모 집단감염 소식에 지난주 MSCI 세계주식시장지수는 4% 이상 하락했다. 시장이 받은 상당한 충격은 시장이 얼마나 민감한지를 분명히 보여줬다.

중앙은행 및 정부의 추가 지원책, 외출제한 조치 종료, 경기 회복 신호에 힘입어 글로벌 증시는 이미 지난주 낙폭의 4분의 3을 만회했다.

하지만 변동 가능성과 관련한 지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의 일부는 코로나 19 재확산이 무엇을 수반할지와 관련돼 있다. 대규모 외출제한 조치가 다시 실행될 정도로 심각할지, 또는 그저 감염률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면서 특정 장소와 지역을 주기적으로 봉쇄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등이다.

물론 이 두가지 상황 모두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지만, 치료법과 백신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상쇄되어야 한다.

시장이 꼬리 리스크에 또 다시 집착하면서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지난 16일 도이치은행은 4 가지 꼬리 리스크인 200 만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독감 유행, 화산 폭발, 태양 표면 폭발, 세계 전쟁 중 하나라도 향후 10년 안에 발생할 확률이 33%라고 말했다.

여기에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한다면, 가능성은 55% 정도로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초점)-경제 재개에 따른 일상 복귀..활동별 코로나 19 위험 지수는?

뉴욕 (로이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외출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사람들이 점차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과연 일상생활이 안전할까?

로이터는 5명의 전염병학자와 공공보건 전문가들에게 11 가지 일상활동에 대해 1 부터 5 까지 위험등급을 매길 것을 요청했다. 1은 위험도가 낮은 활동으로, 숫자가 커질 수록 위험도는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예방조치를 취하면 이러한 활동들이 더 안전해질 수 있음에 동의했다.

미시간 대학교 연구원인 라이언 마로쉬는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실내 활동이 위험도가 높다. 반면 야외 활동의 위험도가 낮는데, 사람들간 충분한 공간이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며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이 적은 곳에 있는 경우"라고 말했다.

◆ 병원가기

위험도 낮음 (평균 2.1)

"지금 당장 병원에 가는 것은 가장 안전한 장소다. 병원에서는 직원들, 대기실, 그리고 대기실로 입장할 때마저 엄격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 피크닉

위험도 낮음 (평균 2.3)

"식사 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식사를 하기 전에 손세정제를 사용해야 한다. 가능하면 사람들 간 거리를 유지하고 음식이나 음료를 나눠 먹어서는 안된다. 뷔페처럼 음식을 나눠 먹기 시작하면 위험도는 증가한다."

◆ 자녀가 친구들과 밖에서 놀기

위험도 낮거나 중간 정도 (평균 2.4)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인지할 정도의 나이 라면, 밖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줄고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도 줄어 위험도는 2 정도 될 것이다. 만약에 더 어린 경우 4, 5 까지 증가할 수 있다."

◆ 쇼핑하기

위험도 낮거나 중간 정도 (평균 2.5)

"판매하는 사람, 사는 사람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

◆ 사무실 근무 복귀

위험도 중간 (평균 2.6)

"사무실 직원들이 밀집되지 않도록 격일제 근무를 도입해야 할 수도 있다. 직원들이 자신의 증상을 잘 인지하고, 검사를 받도록 장려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

◆ 노년층 만나기

위험도 중간 (평균 3.2)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킨 노인을 만난다면 노인에게 위험이 더 크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깨끗이 씻고,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접촉한 적이 없고 아무런 증상이 없음을 확인했다면 만나도 좋다."

◆ 미용실 가기

위험도 중간 (평균 3.4)

"미용사와 손님 모두 아무런 증상이 없고,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위험도는 낮다. 하지만 만약 미용사가 기침을 한다면.. 얼른 도망가라."

◆ 식당 가기

위험도 중간 (평균 3.4)

"야외 식사는 환기가 더 잘되기 때문에 실내 식사보다 덜 위험하다. 야외 식사가 됐든 실내 식사가 됐든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은 식사 상대, 테이블 간격, 식당 손님수,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다"

◆ 저녁 식사 초대

위험도 중간에서 높음 (평균 3.8)

"손님에게 증상이 있다면 돌려보내라. 문앞에서 돌려보내긴 곤란하니 방문 전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

◆ 아이들 여름 캠프

위험도 높음 (평균 3.9)

"하이킹, 스포츠, 단체 식사, 캠프 파이어, 숙소, 노래 부르기 모두 바이러스 확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야외 활동이 많은 소규모 캠프라면 위험도는 3이다. 하지만 검사 없이 많은 아이들이 함께 하는 경우라면 위험도는 4다. 5까지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단지 아이들이 코로나 19에 걸릴 위험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태프들은 다를 것이다."

◆ 대중교통 이용

위험도 높음 (평균 4.1)

"직장이 있고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할 수 밖에 없는 활동이다. 도시에 사는 사람의 경우 더욱 그렇다. 나라면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깨끗이 할 것이다. 도움이 되지 않는 조언이라는 걸 알지만, 사람이 북적이는 지하철은 피해라. 버스에서는 창문을 열어야 한다."

(시장진단)-재부상한 北 리스크, 연말까지 원화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될 수도

(※ 17일 송고한 기사입니다)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이 급부상하면서 국내 외환시장의 긴장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북한은 17일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지역 그리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에 군부대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해상 부근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북한의 개성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에 역외거래에서 달러/원 환율은 속등해 잠깐 예민한 반응을 보였지만 이후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 5년물 신용부도스왑(CDS)프리미엄도 20bp 후반대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약 2년 간 남북 화해모드에 균열이 생기는 가운데 취약한 대외여건과 맞물리며 원화가 이에 따른 부담을 반영할 가능성은 다소 커졌다.

▲ 높아지는 긴장감

국내 시장전문가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당장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KB 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유엔 제재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북중 경제협력 등이 제한된 가운데 미국 대선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대북 관련 리스크가 지속될 가능성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대북 관련 리스크가 올해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달러/원의 하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북한 리스크가 당장의 원화 약세를 트리거하지는 않겠지만 불안한 대외 여건과 맞물리며 원화 약세를 유도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한 은행의 외환딜러는 "간밤 뉴욕시장에서는 북한 리스크가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환율의 하방을 지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북한 리스크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 분쟁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 우려 등 다른 재료들도 부정적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장참가자들은 향후 북한의 추가적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정책의 성과로 '핵 및 미사일(ICBM) 실험 중단'을 강조해 왔는데 북한이 이와 관련 활동을 재개한다면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가 난처해지고, 미국의 반발과 대응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초점)-해소되지 않는 마이너스 크로스 금리, 본드스왑스프레드 이어 뉴노멀되나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코로나 19 사태로 타격을 입었던 전 세계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으며 주가지수 등 주요 가격지표가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만 통화스왑(CRS) 시장은 여전히 이례적인 마이너스 금리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달러 이자율스왑(IRS) 금리의 하락과 자산스왑 등 수급 여파가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심리적 요인도 CRS 금리의 플러스 반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본드스왑 스프레드 역전처럼 국내 시장의 뉴노멀(new normal)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마이너스 금리 해소되지 않는 크로스 시장

지난 17일 CRS 1년 금리는 -0.175%, 2년 금리는 -0.270%, 3년 금리는 -0.210%, 5년 금리는 -0.095%에 마감했다. CRS 1년 테너부터 5년까지 금리가 모두 마이너스다.

CRS 금리가 달러 변동금리와 교환되는 원화 고정금리를 나타내므로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는 것은 국내 은행이 원화를 주고 달러를 빌려올 때 달러 이자뿐 아니라 원화에 대한 보관료까지도 상대방에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통상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마이너스 CRS 금리는 이전에도 나타난 적이 있다. 1년 금리는 리먼브러

더스 파산 직후였던 지난 2008년 11월 3일 -0.3%를 기록했고 2009년에는 CRS 2년, 3년 금리도 마이너스권에 진입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16일 장중 5년 CRS 금리가 -0.01%에 거래되기도 했다. 대규모 자산스왑 롤오버와 부채스왑 기근이 낳은 일시적인 수급 쏠림 때문이었다.

CRS 금리는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달러 유동성 우려가 본격화되던 시기에 급락해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무제한에 가까운 달러 유동성 공급 정책을 폈는데도 플러스 반전을 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주가는 코로나 19 이전 수준까지 반등했고 주요 금융시장 지표도 위기 이전 수준을 상당 부분 회복해 마이너스 금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CRS 시장 상황은 더 주목을 끌었다.

A 은행 이자율 딜러는 "크로스 금리를 플러스로 만들어보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실패했다"며 "내가 받는 달러에 대해서도 이자를 주고 주는 원화에 대한 보관료도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접근한 건데 어느 순간에 나도 다시 오퍼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어 있었다"고 말했다.

▲절대금리보다 베이스스가 중요..'달러 IRS 낙폭 간과 못해'

물론 시장참가자들은 달러 IRS 금리 하락폭을 생각하면 마이너스 CRS 금리 지속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올해 초 1.6%대에서 움직이던 5년 달러 IRS 금리가 현재 0.3%대로 떨어진 만큼 올해 고점이 0.86%인 5년 CRS 금리가 마이너스대에 가 있는 게 이상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달러 IRS 금리 하락과 현재 스왑 베이스스를 감안하면 마이너스 CRS 금리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재 100bp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스왑 베이스스 역시 고정된 것은 아니다. 한-미 통화스왑, 연준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 조치 등에 힘입어 지난 3월에 급격히 벌어졌던 스왑 베이스스도 꾸준히 축

소됐다. 이 과정에서 **CRS** 금리를 플러스로 되돌리려는 노력도 이어졌다.

지난 5월 19일에는 2년과 3년 **CRS** 금리를 제외한 모든 테너에서 금리가 플러스로 돌기도 했다. 당시 1년 스왑 베이스는 **72bp**, 2년부터 5년까지 스왑 베이스는 **84bp** 까지 축소했다.

이달 8일에도 2년과 3년 **CRS** 금리를 제외한 모든 테너 금리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왔다. 1년과 2년 스왑 베이스가 **72bp**, **87bp**였고 3년과 5년 스왑 베이스는 각각 **93bp**였다.

결국 스왑 베이스가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채 다시 벌어졌고 이는 결국 달러 수급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카타르발 대형 수주에 따른 중공업체의 선물환 매도 확대 기대감과 지속적인 보험사 롤오버 물량이 2, 3년 테너에서 금리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B 외은 지점 트레이딩 헤드는 "**CRS** 마이너스 금리 자체보다는 베이스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전에도 리스크 오프 상황에선 스왑 베이스가 **90-100bp** 정도는 벌어져 있었으니까 현재 상황이 심각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구조적으로 베이스가 벌어져야 하며 그런 베이스가 전체 거시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지금 베이스가 너무 축소되면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타르발 중공업 물량은 2027년까지 매년 30억달러 정도로 예상된다"며 "보험사 신규 자산스왑 물량은 많지 않지만 롤오버가 계속 나오는 만큼 2, 3년 테너에선 오퍼 압력이 더 강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마이너스 **CRS** 금리 장기화 가능성..본드스왑 스프레드 이어 뉴노멀 가능성

마이너스 **CRS** 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를 감안할 때 당장 달러 **IRS**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데다, 달러

IRS 금리가 오른다 해도 리보금리가 상승하며 전반적인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CRS** 금리는 오히려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마이너스 **CRS** 금리가 본드스왑 스프레드 역전처럼 국내 시장의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상 국가의 신용등급이 은행 등급보다 높기 때문에 국고채 금리가 이자율스왑(**IRS**) 금리보다 낮게 정상으로 여겨지지만 국내 이자율 시장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본드스왑 스프레드 역전이 나타난 바 있다.

본드스왑 스프레드 역전이 나타났던 초기에만 해도 금방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후 역전폭은 더 커졌고 그렇게 20년여 년이 지나면서 국내 시장에서 역전 자체가 정상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다.

C 은행 자금운용팀장은 "크로스 금리가 마이너스여도 고객들이 문제없다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마이너스 크로스 금리가 올해의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D 은행 자금운용팀장은 "금리 레벨의 경우 이론적인 접근일 뿐 시장 상황을 모두 설명해주는 건 아니다"라며 "지금은 코로나 19 사태와 미국 대선, 미-중 무역갈등, 홍콩과 북한 문제 등 재료를 감안할 때 심리적으로 오퍼를 잡는 게 편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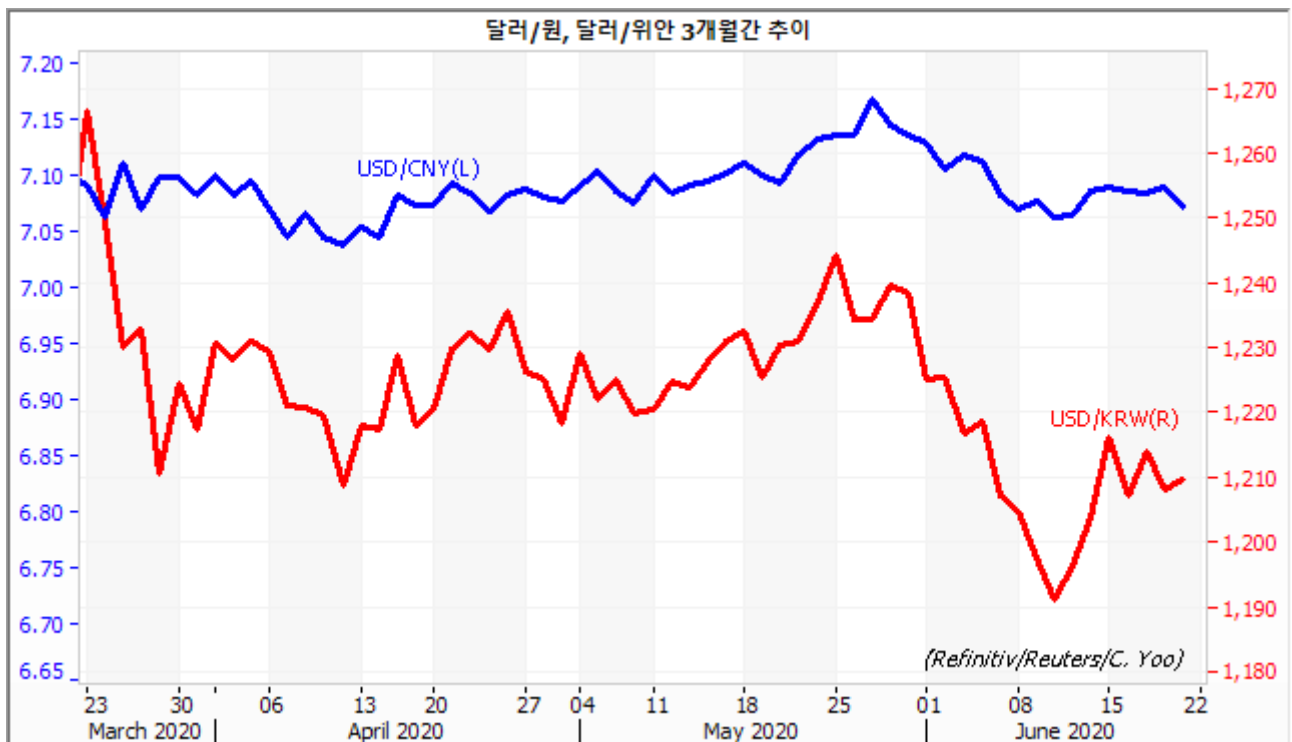
그는 "중공업 관련 물량은 연말쯤 돼야 본격적으로 나올 거라고 들었다"며 "보험 물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준이 달러를 무한정 공급한다고 하지만 정말 달러 부족이 없는지는 의문"이라며 "현재 상황이 적어도 올해까지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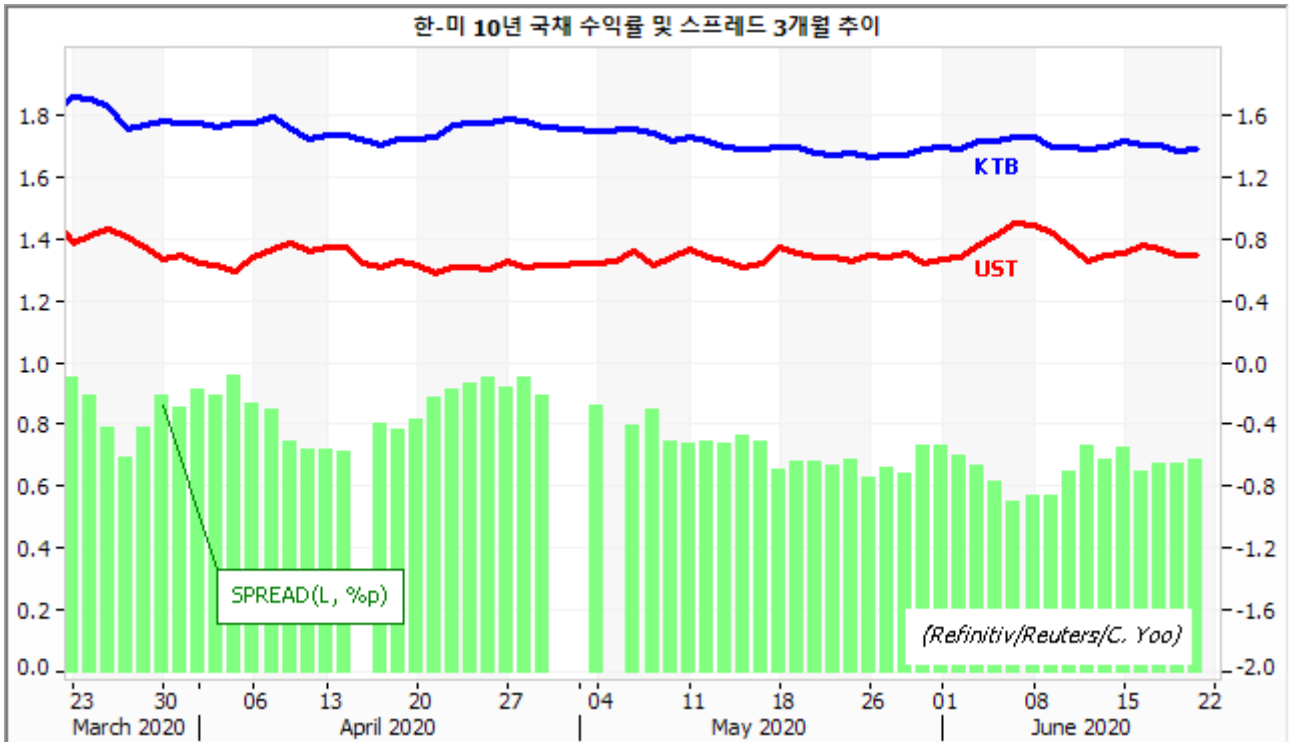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